

# 로맨스·스릴러·판타지...

# 드라마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 스타 캐스팅·다양한 소재 등 시청자들 선택 폭 넓어져

장르극의 흥수 속에서도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건 역시 로맨스극이다. 최근 쏟아지는 신작들을 보면 스타 캐스팅을 무기로 한 정통 로맨스극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지만, 스릴러 등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해 승부를 띄우는 변주극들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스타 보는 재미-'hunnamjeongum'·'김비서가 왜 그럴까'  
똥통 튀는 '밀당'과 서사만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기야 하는 정통 로코(로맨스코미디)는 아무래도 남녀 주인공에게 책임을 많이 지울 수밖에 없다.

23일 시작하는 SBS TV 수목극 'hunnamjeongum'과 오는 6월 6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수목극 '김비서가 왜 그럴까' 역시 주연 남녀에 명운이 걸려있다.

'hunnamjeongum'은 코믹 연기가 몸에 밴 남궁민과 로코 하면 빠질 수 없는 황정음이 만나 기대를 모은다.

두 사람은 각각 사랑을 거부하는 비연애주의자 훈남, 사랑을 꿈꾸지만 딱딱한 현실에 연애포기자가 된 정음으로 변신해 남다른 호흡을 과시할 예정이다. 사전에 공개된 스틸컷만 봐도 두 사람의 톡톡 튀는 표정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hunnamjeongum' 관계자는 "두 사람은 7년 전 '내 마음이 들리니'에서 호흡을 맞춰봐서 현장에서 NG조차 날 게 없다. 이쪽에서 '꿈' 하면 저쪽에서 '짜'할 정도고, 두 사람 모두 아이디어가 샘 솟는다"고 말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역시 경쟁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나영석 PD의 예능 '윤식당2'를 통해 방송도 광고도 휩쓰는 박서준과 예쁘고 연기 잘하는 박민영이 만났다.

박서준은 재력, 얼굴, 수완까지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자기애로 푼뚝 뚫린 나르시시스트 부회장으로, 박민영은 그런 그를 완벽하게 보좌해왔지만 퇴사를 꿈꾸는 비서로 변신한다. 로코와 찰떡궁합인 오피스를 배경으로 한 점도 기대를 모은다.

◇뭐 하나는 특색 있게-'어바웃타임'·'기름진 멜로'·'이리와 안아줘'  
스타 캐스팅은 방송 전부터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 쉬운 '고비용 고효율' 전략이지만 누구나 그 전략을 택할 수는 없다. 대신 스릴러, 판타지, 심지어는 쿡방(요리방송)을 가미한 변주극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톱스타 캐스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높아진 눈에 맞추려는 의도도 있고, 과거처럼 스타 캐스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지난 21일 시작한 tvN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은 판타지 옷을 입은 로맨스극이다. 수명 시계를 보는 능력을 지닌 여자 미카엘라(이성경 분)와 운명으로 엮인 남자 도하(이상윤 분)가 마법 같은 사랑의 순간을 그린다. 일본 만화에서나 볼 법한, 타인의 남은 수명을 볼 수 있다는 소재가 시청자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것으로 제작진은 기대했다.

서숙향 작가의 신작 SBS TV '기름진 멜로'는 작가의 전작 '파스타'처럼 로코에 요리, 그리고 코믹을 가미했다. 좁은 동네 중국집을 배경으로 각자 꿈도 사랑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청춘들의 모습이 공감 포인트다. 다소 산만한 연출이 흠이지만 늦은 밤 군침 돌게 하는 요리 장면과 배우들의 연연이 젊은 시청자들을 유혹한다.

신에 장기용-진기주를 주연으로 내세운 MBC TV '이리와 안아줘'는 장르극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스릴러에 상당한 비중을 뒤 화제물이 중이다. 스타 캐스팅은 없지만 아역들의 연기부터 쌓아올린 탄탄한 서사와 로맨스-스릴러 간 빠른 전환, 완벽한 사이코패스로 변신한 허준호의 연기가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윤상원·전태일 두 열사의 삶 속으로

### 광주MBC 5·18 특집 다큐

### '두 개의 일기' 27일 방영

5·18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불의에 맞섰던 광주 출신 윤상원 열사,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대구 출신 전태일 열사. 한국 민주주의를 앞장서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광주MBC(사장 송일준) 5·18 38주년 특집다큐멘터리 '두 개의 일기'(부제 윤상원과 전태일, 항쟁의 뿌리를 탐구하다·기획 박수인, 연출 김철원, 촬영 박재욱, 구성 윤희경)가 5·18민중항쟁의 마지막 날이자 윤상원 열사가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27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제작진은 윤상원 열사의 정의와 용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추적하던 중 1970년 분신해 숨진 전태일 열사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을 잃은 것을 호소하며 분신 사망한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윤상원 열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유족들이 보관 중인 두 열사의 일기와 주변 인물의 증언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길러졌는지를 추적한다.

또 제작진은 전태일 열사가 가장 애뜻하게 생각했던 친구 정원섭씨를 직접 만났다. 정 씨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기 전 유서형식의 편지를 보낸 주인공으로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는 인물이다. 친구 전태일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무려 48년 만에 받게 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11권에 달하는 윤상원 일기와 전태일의 일기 7권과 수기를 일일이 촬영해 전집 기록을 공개한다. '두 개의 일기' 타이틀 서체는 두 열사의 전집 일기에서 채집한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내레이션을 MBC 박혜진 아나운서가 맡았고, 일러스트는 노동문제를 다룬 웹툰 '송곳'과 6월항쟁을 다룬 웹툰 '100C'의 작가 최규서 씨가 맡았다.

윤상원 열사 낭독은 극단 신명의 대표 정찬일 씨, 전태일 열사 낭독은 대구의 연극인 성용훈 씨가 맡아 청년 윤상원과 전태일의 목소리를 재현했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철원 기사는 "박정희, 박근혜, 부패 대통령이 구축한 60년에 가까운 박정희 체제가 어떻게 해체됐는지, 세계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1700만 명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촛불항쟁의 힘이 어디서 발원(發源)했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죽음의 공포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두 열사의 용기는 오늘까지도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다큐멘터리는 대구MBC, 안동MBC, MBC경남, 대전MBC, 목포MBC, 여수MBC 등 6개 지역에서 동시에 방송된다.



###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펜수들 (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연생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TV스쿨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이리와 안아줘(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재) 50 UHD 승터(재)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슈츠(재)		00 애니갤러리 30 교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인형의 집 (재)	00 12 MBC 뉴스 30 UHD 부자집 아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매카더		30 엑스트림 서프라이즈 50 판다랑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스페셜 50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55 UHD 승터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0 꾸러기 식스교실 50 MBC 스포츠 UEFA 챔피언스리그 (B군 준결승 2차전)	00 뉴스브리핑
3	00 천상의 컬렉션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지원		
4	00 4시 뉴스집중 40 2018 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바른미래당)	00 누가 누가 잘하나	4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자유한국당)	00 여행배를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토이킵 2 30 주간연예수첩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펜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골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닝TV 인사이드	55 2018 FIFA 리시어월드컵 특집 안정환과 축구 먹는 남자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승터	00 슈츠	00 이리와 안아줘	00 훈남정음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북한문화유산 4부작	10 해피투게더	10 이불 밖은 위험해	10 김어준의 불력하우스 1~2부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다이아리 50 2018 가정의 달 특집 잉크로 휴먼다큐 사랑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북한의 어로공) 06:00 한국기행(재) (단편이라 좋아 4부 사과꽃 당신)	09:00 똑똑맨 09:15 두다다쿵(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지누름적과 맥주구이)
06:20 세계테마기행 (세상의 모든 시간 터기 4부 혹해의 알프스 폰투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13:40 다큐 시선 (어느 오월의 증언)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똥똥똥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말랄라 뿌우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말랄라 뿌우(재) 16:45 똥똥똥 유치원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배워서 남주렴
	20:40 세계테마기행 (그 섬에 가면 인도네시아 4부 낙원의 향기 말루쿠) 21:30 한국기행 (우리 같이 살까요 4부 내 마음의 덕단) 21:50 다큐 시선 (우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05 지식채널e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교통 혁명의 신호탄, 하늘 나는 자동차)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4일 (음 4월 10일 癸亥)

<b>子</b>	36년생 기쁜 해를 맞이하며 다행으로 현안에 대비할 수 있다. 48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60년생 실제 내막은 복잡하다. 72년생 원칙대로 정확히 해야만 후회할 수 없다. 84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b>행운의 숫자 : 07, 22</b>	<b>午</b>	42년생 기존의 것이 훨씬 낫다. 54년생 명쾌한 징후가 될 것이니 무시하지 마라. 66년생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고 진운을 정비해야 할 성운에 놓여 있다. 78년생 해결의 열쇠가 보일 것이다. 90년생 인쇄 실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된다. <b>행운의 숫자 : 13, 64</b>
<b>丑</b>	37년생 현명하게 살펴본다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49년생 유동적인 변수까지 감안하자. 61년생 원칙과 체계에 따르자. 73년생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는 것이 지당하다. 85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 <b>행운의 숫자 : 89, 58</b>	<b>未</b>	43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55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생산적인 시도로 이끈다. 67년생 이변을 지초하는 동세가 대비될까 우려다. 79년생 진력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91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보인다. <b>행운의 숫자 : 03, 94</b>
<b>寅</b>	38년생 무주공산에 걸고 있는 판도이다. 50년생 현실을 직시하라. 62년생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국면을 타개한다. 74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들 것이다. 86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본원이다. <b>행운의 숫자 : 94, 72</b>	<b>申</b>	44년생 단속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56년생 철저히 대비해야만 이를 수이니라. 68년생 지난날의 실적에 의해서 박수 받을 일이 있다. 80년생 세분화 시켜서 날날이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단계이다. 92년생 유익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25, 60</b>
<b>卯</b>	39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실수는 면하라. 51년생 김사로 연결되며 발전 된 양상을 띤다. 63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니라. 75년생 편한 국면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여자는 있다. 87년생 이미 기다리 잡고 있다. <b>행운의 숫자 : 38, 44</b>	<b>酉</b>	45년생 흉내 내다가는 참으로 우순은 풀이 되리라. 57년생 갈등이 심화 될 것이니라. 69년생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성운이니라. 81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93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 찾을 수 있다. <b>행운의 숫자 : 86, 08</b>
<b>辰</b>	40년생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이다. 52년생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혀 부담할 이유가 없다. 64년생 해묵은 쟁점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니라. 76년생 점점 한기가 사라지면서 따뜻해지리라. 88년생 매사가 상대적임을 알라. <b>행운의 숫자 : 98, 90</b>	<b>戌</b>	34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46년생 취약점이 보이거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58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자. 70년생 말은 아끼고 무겁게 하는 것이 낫다. 82년생 확신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b>행운의 숫자 : 80, 78</b>
<b>巳</b>	41년생 순탄하게 진행된다. 53년생 실속은 없고 명분만이 난무하고 있다. 65년생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면 쉽게 유리한 점을 획득할 수 있다. 77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하다. 89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b>행운의 숫자 : 83, 75</b>	<b>亥</b>	35년생 바탕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정황에 불복한다. 47년생 기쁜 해를 맞이하게 된다. 59년생 시의적절한 운이니 활동 반경을 넓혀라. 71년생 시비를 가리기 전에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83년생 끝까지 주의하라. <b>행운의 숫자 : 32, 80</b>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